

2010 년도 세계 섬유 생산량

2011 년도 Oerlikon 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0 년도 천연 및 인조 섬유 생산량은 8,080 만톤으로 8.6%(64 만톤)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인구 1 인당 평균 11.8kg 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 년도에 세계 섬유 산업은 25 년 만에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하였다.



< 2011 년도 Oerlikon 사의 보고서 >

셀룰로스와 합성섬유 모두 두 자리 성장을 하였고, 폴리에스터 필라멘트는 37%, 비스코스 섬유는 17% 성장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0 년도에 천연섬유 생산량은 2.2% 증가하였다.

2010 년 12 월 21 일에 186 달러/파운드를 기록한 면섬유의 가격 급등으로 경쟁력 있는 보다 저렴한 섬유의 사용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특히, 향후 면화 재고량은 평균 이하로 유지되고, 재배 면적의 확장도 경작지의 한계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폴리에스터와 비스코스 섬유가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섬유로 예상되었다.

비교적 소량이지만, 탄소 섬유 제조는 미래 유망산업인 우주선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Oerlikon 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면과 인조섬유 방적시 방적공정 이외에도 신형 방적기계를 전체 설치 대수 대비 평균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섬유 수요의 증가는 소비자 신뢰감 및 수입 증가와 더불어 세계 경제 회복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카펫 사업은 여전히 금융 위기의 여파를 받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의 회생은 지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년 전에 섬유 쿼터제가 폐지되어 중고 섬유기계 무역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Oerlikon 사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유지된다면, 2011 년도 섬유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